

미래의 적정 대입정원 추계(2005~2050)

김형근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수석연구위원

I. 머리말

우리나라 대학학생정원정책은 시대적 상황에 따라 달라져 왔다. 대학의 자유의사에 따라 학생을 모집하는 자유방임기(45-'61)와 대학별 학생정원 총수를 교육장관이 결정해 주는 통제감독기('61-'80)를 거쳐 입학정원의 대폭 확대 대신 일정비율의 학생만 졸업하게 하는 졸업정원기('81-'95)도 있었다. '96년부터는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대학학생정원을 자율화 하였는데, 그것은 정부가 제시한 학생정원 정책방향 및 책정기준에 따라 대학이 자유롭게 정원을 조정하되, 법령상 규정한 일부정원(국·공립 및 수도권대학, 보건·의료 및 사범계학과)만 정부가 결정하는 시책이다. 현재의 대학정원 자율화 정책시대에는 일부 정부 규제대상 정원 이외의 학과 등 정원에 대하여 각 대학은 정부책정 인적·물적 조건만 충족되면 자유롭게 학생입학정원을 수시로 조정할 수 있다.

과거의 대학정원정책은 대학교육에 대한 입학수요와 교육의 질 보장 간 균형을 고려해 주로 대학의 학생 수 증원을 규제, 조정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나, 급격한 인구(입학자원)감소로 이러한 정원억제 정책은 그 효력이 크게 약화 되었다. 1980년대 중반 이래 출산율이 1.6%대 이하로 떨어지자 2000년대에 이르러 많은 대학들이 학생정원 채우기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970년 4.53%에서 1980년 2.38%, 1986년 1.6%, 2000년 1.47%, 2007년 1.26% 등으로 급속도로 떨어지고 있으므로 이제 학생정원정책은 증원에서 감원으로 바뀌는 추세이다. 출산율의 저하로 인하여 1999년까지 계속적으로 증가하여 85만 명대에 이른 18세 대입학령인구는 2001년에는 7만여 명이 감소하여 78만 명 수준으로, 그리고 2003년에는 66만 명으로 떨어졌다. 이러한 입학자원 감소사태의 발생은 대부분의 대학재정을 학생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 대학들에게는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통계청이 추계한 미래의 대입학령인구의 변화 추세를 보면, 18세 인구는 2005년 대비 2010년에는 109%로 약간 증가하다가 2020년에는 81%, 2030년에는 65%, 2040년에는 57% 그리고 2050년에는 51% 수준으로 크게 떨어진다. 더구나 2007년 해외로 나가는 유학생의 수가 22만 명에 이르는 반면 국내로 들어오는 외국인 학생 수는 5만 명에 불과하며 그 차이는 더 커질 수 있다.

따라서 대학과 정부는 2020년부터 다가올 급격한 대입자원 감소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충분한 준비를 해나가야 대학교육의 혼란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II. 대입지원자 및 입학정원 추계 범위와 방법

1. 추계 범위와 기준

대입학령인구, 대학지원자 수, 적정 대입정원 등 추계 기간은 2005년부터 2050년까지 45년간으로 하고, 추계 대상으로 삼는 대학의 범위는 고등교육법상의 대학, 교육대학, 산업대학 및 전문대학으로 한다. 방송대학과 사이버대학 등은 적령인구 입학자 수가 매우 적고 과기대와 사관학교 등 역시 신입생 모집인원의 합계가 수백 명일 뿐만 아니라 그 성격이 특수하기 때문에 제외한다(고등교육법상의 구분한 대학은 일반대학으로 표기하기로 한다).

대입적령인 18세 인구추계는 통계청의 추계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시·도별 대학지원자를 추계함에 있어, 지역 환경의 변화나 대학별 교육여건 변화 등으로 인한 지원자 수 변동가능성은 반영하지 아니하였다.

대학지원자 수 추계의 기본 틀은 입학적령인구인 18세 인자와 그 외의 자로 대별하고, 당해 연도 고졸자 중 18세 입학지원자를 정규 지원자로, 여타 연령의 입학지원자를 재수생 기타 지원자로 한다.

2. 연도별 대입 적령인구 추계

대입적령인구인 18세 인구가 장래에 연도별로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를 추계하는 작업은 적정 대입정원을 추산하는데 있어, 기초적이며 핵심적인 일이다. 지난해 출생자까지는 신고에 의해 실수를 알 수 있으나 앞으로의 출생인구의 예측은 일반적인 인구 추계방법에 따라 최근의 출생과 사망추이를 기초로 전망하게 된다.

미래의 지역별 18세 인구는 이러한 출생과 사망 추이 뿐만 아니라, 당해 지역의 도시계획이나 산업 환경에 따라 인구가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 환경이나 지역적 환경의 변화까지를 예측하여 인구를 추계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이다.

따라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인구변동의 실적자료를

통해 시도별 장래인구를 추계한 통계청의 시도별 학령인구 추계 수치를 적용하기로 한다. 그러나 2007년 5월에 수정 추계한 시도별 적령인구 추계 자료는 2030년까지이기 때문에, 그 이후 2050년 까지 20년간의 지역별 18세 인구추계 수치는 역시 통계청이 추계한 연도별 전국단위 18세 인구 숫자를 2030년 당시의 지역별 추계 분포비율을 대입하여 산출한 것이다.

3. 연도별 대학입학지원자 추계

대학입학지원자 예측은 연도별 고등학교 졸업자 중 대학입학 지원자 수와 재수생 등 당해 연도 졸업자 이외의 지원자 수를 추산하여 합하면 가능하게 된다.

연도별 당해 연도 고등학교 졸업자 중 대학지원자는 고등학교 졸업자 수를 추산하고 여기에 대학입학지원자 비율추이를 반영하여 산출할 수 있다. 미래의 고등학교 졸업자 수는 해당연도 18세 인구 중 고등학교 졸업률 추이를 반영하여 산출한다. 그리고 대입지원자 추이는 최근 수년간의 대입지원자 중 당해 연도 고졸자 수를 파악하여 분석할 수 있다. 그러나 대학의 학생모집 시기가 수시, 정시, 추가모집 등 여러 차례 나누어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중복지원자들로 인하여 진학지원자 실수를 찾을 수 없다. 따라서 과거에는 수능시험지원자를 진학지원자로 추산하였으나, 2000년 이후 수능시험 성적을 반영하지 아니하는 수시모집 제도가 도입되어 이 방법 역시 타당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당해 연도 고졸자의 대학지원자 수는 고등학교 3학년 재학 중 조사한 진학희망자 수를 적용하기로 한다.

대학입학지원자 중 당해 연도 고졸자 이외의 지원자 수 추이 분석 자료는 과거에는 수능시험지원자 중 해당자 통계를 사용할 수 있었으나, 이 통계 역시 수시모집 지원자 문제로 정확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최근 수년간 대학 신입생모집 합격자 중 당해 연도 고졸자 이외의 자 숫자를 분석하여 그 비율추이를 적용하기로 한다.

4. 연도별 적정 대입정원 추계

광복 이래 대학입학 정원정책은 자유방임제, 정부배정제, 포괄승인제, 교육여건연동제 등으로 이행되어 왔다. 앞으로 인구감소 추세가 더욱 확대되면 교육여건연동제마저도 정부가 간섭할 필요가 낮아질 것이다. 그러나 수도권과 의·약학계, 사범계, 법학계 등 일부 특수학문 분야에 있어서는 사회적 필요에 의해서 계속 정부의 규제정책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서는 대입학령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 사회의 대입정원을 추계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수도권 인구정책과 특수학문분야에 관련된 정원 이외는 완전하게 대학의 자율에 맡겨질 것을 전제로 한다. 그리고 지역별 대입정원 추계 역시 인구추계의 일반적 방법에서와 같이 향후 사회적, 지역적 상황의 변화나 개별 대학의 정원정책 변화 예측 등의 문제는 반영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Ⅲ. 연도별 대입적령인구와 대입지원자 추계

1. 연도별 대입적령인구 추계

통계청은 대학학령(18-21세) 인구가 2005년도 현재

2,637천 명이었으나, 2030년에는 1,648천 명으로 38%가 감소하고, 2050년에는 1,329천 명으로 50%가 줄어들 것이라고 추계하였다. 또한 대입적령인구는 2005년 현재 624천 명이 2030년에는 404천 명으로 35%가 감소하며, 2050년에는 321천 명으로 49%가 감소할 것으로 다음 표와 같이 예측하고 있다.

2. 연도별 대입지원자 추계

2050년까지의 연도별 대입지원자 추계는 대입적령인 18세 추계인구를 기준으로 하여 시계열분석방법으로 산출해내는 방법이 타당하다. 이를 위하여 연도별 고등학교 졸업학년도 재학생 중 18세인자의 비율변화추이, 연도별 고졸자의 진학 희망률 변화추이, 연도별 대학입학자 중 18세인자의 변화추이 등을 조사, 분석 한다.

가. 연도별 고졸자 중 18세 인구의 변화 추이

연도별 고졸자 중 18세 인구의 변화추세를 보기 위하여 1995년, 2000년, 2005년, 2006년, 2007년의 경우를 비교해 보면 다음 <표 2>와 같다.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졸 해당 학년의 재학생 중 18세인 학생은 1995년 71.2%에서 2007년 92.3%로 증가하였고 또한 증가추세에 있으므로 미래의 대학입학지원자 추세를 산출함에 있어 종전까지 고졸자 기준이나 수능 지원자를 기준하던 방법을 18세 인구를 기준하는 방법으

표 1. 연도별 전국 18세 인구 추계표

(단위: 천 명)

연 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18세인구	624	611	616	629	655	679	690	690	681	666
연 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18세인구	645	619	599	599	568	508	472	457	431	420
연 도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2034
18세인구	426	424	421	416	410	404	397	390	383	377
연 도	2035	2036	2037	2038	2039	2040	2041	2042	2043	2044
18세인구	371	366	364	362	357	354	355	356	356	355
연 도	2045	2046	2047	2048	2049	2050				
18세인구	353	350	354	337	330	321				

(자료 : <http://www.kosis.kr> 인구추계, 2008)

표 2. 고졸자 중 18세 인구의 변화추이

졸업연도	1995	2000	2005	2006	2007
졸업자 수	649,653	764,712	569,272	568,055	571,357
18세 학생 수	462,806	657,313	485,635	511,767	527,568
18세 구성비	71.2	86.0	85.3	90.1	92.3

표 3. 고졸자의 진학 희망자 수

연 도	고졸 자	진학희망자	진학 희망률	수능지원자	수능 지원율
1995	649,653	450,690	69.4	477,960	73.6
1996	670,161	479,741	71.6	526,833	78.6
1997	671,614	507,061	75.5	545,023	81.2
1998	736,889	581,358	78.9	613,372	83.2
1999	747,723	575,616	77.0	623,130	82.5
2000	764,712	595,701	77.9	631,745	82.6
2001	736,171	589,379	80.1	603,238	81.9
2002	670,713	539,134	80.4	541,662	80.8
2003	590,413	489,017	82.8	482,089	83.1
2004	588,550	478,179	84.6	476,192	80.9
2005	569,272	499,705	87.8	435,538	76.5
2006	568,055	507,920	89.4	422,310	74.3
2007	571,357	518,965	90.8	425,396	73.9

로의 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연도별 고졸자의 진학 희망률 추이

고졸자의 대학지원자 수를 추산함에 있어, 대학별 지원자를 합산하는 방법은 복수지원자 문제 때문에 종전에는 수능지원자를 기준하였으나, 2000년대 중반이후 수시모집지원자의 급증과 수시합격자의 수능시험 미지원으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따라서 고등학교 3학년 재학 중의 진학 희망자 수와 수능지원자 수를 연도별로 비교하여 고졸대상자의 진학 희망률을 대학지원율로 대체할 수 있을 것인지를 비교하면 다음 <표 3>과 같다.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5년부터 2000년까지는 고졸자 중 실제 수능지원자 수가 진학희망자 수 보다 많아 그 비율이 연도별로 7.0%~4.2% 높았다. 그러나 2001년부터 2003년 까지는 0.3%~1.8%차로 약간 높아지다가 수시지원자가 늘어나는 2004년에 수능지원율이 오히려 3.7% 낮아지고 점차 그 간격은 커져 2007년에는 진학 희망률이 90.8%에 이르고 있으나 수능지원율은 73.9%로

크게 낮아졌다. 이는 수시합격자는 수능시험에 지원하지 않는 결과이다.

따라서 미래의 대학지원자 추세는 최근 수년간의 고졸자 진학 희망률과 재수생 기타 지원자의 추세변화를 고려하여 산출할 수 있을 것이다.

다. 연도별 대학입학자 중 18세인자의 비율추이

대학입학 지원자 수는 지금까지 당해 연도 고졸자와 재수생기타자로 구분하여 산출하는 것이 일반적 방법이다. 그러므로 산정시점으로부터 18년 이후의 고졸자 추정은 결국 18세인구 추계와 각급 학교 진학률을 고려하여 산출할 수 있다. 그러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고졸자 중 18세인자의 비중이 90%를 초과하고 있고 나아가 100% 수준까지 이를 것으로 전망되므로 향후 대학입학지원자를 추계함에 있어 '고졸자 대 재수생기타자' 대신 '18세인자와 18세 이외인 자로' 구분하여도 무방할 것이다.

그래서 과거 대학에 입학한자 중 18세인 자와 18세 이외인 자의 구성비 변화추이를 분석하여 이를 미래의 대입

지원자 추계에 반영하기로 한다.

위 표에서 보는바와 같이 대학입학자 중 18세인 자와 18세 이외인 자의 구성비는 1995년 거의 같은 수준이었으나 2007년에는 18세 이외의 입학자 수가 18세 입학자 수의 절반수준으로 낮아졌다. 이는 고졸자 중 18세인 자의 비중증가와 더불어 대입제도의 변화로 재수생수가 크게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라. 연도별 대입지원자 수 추계

앞에서 산출해본 방법에 따라 18세 추계인구를 기준으로 하여 '시계열분석방법'으로 연도별 대입지원자 수를

추계하면 다음 <표 5>와 같다.

Ⅳ. 전국단위 미래 적정 대입정원 추계

1. 미래의 적정 대입정원 추계 관련 현황분석

대학별 학생정원 책정은 우선 교육(전공)단위별 적정규모의 학생모집 가능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과거와 같이 인구가 증가하는 추세에서는 대부분의 대학들이 입학지원자 중 선발전형 방법을 통하여 일부만 받아들이고, 합

표 4. 연도별 대학입학자 중 18세인 자의 구성비 변화추이

연도	18세수	고졸자수	고졸률	대학 입학자 수			
				총 수	18세 입학자	18세 외 입학자	비율
1995	773,000	649,653	84.0	506,844	259,299	247,545	95.5
1996	750,098	670,161	89.3	548,657	307,534	241,123	78.4
1997	782,986	671,614	85.8	604,053	325,507	278,546	85.6
1998	819,347	736,889	90.0	650,747	335,637	315,110	93.9
1999	850,184	747,723	87.9	661,802	406,735	255,065	62.7
2000	826,889	764,712	92.5	677,849	385,166	292,683	76.0
2001	775,065	736,171	95.0	688,548	405,843	282,705	69.7
2002	714,484	670,713	93.9	668,705	376,119	292,585	77.8
2003	661,872	590,413	89.2	631,320	346,308	285,012	82.3
2004	644,962	588,550	91.3	622,918	379,409	243,509	64.2
2005	623,885	569,272	91.2	611,952	407,078	204,874	50.3
2006	611,406	568,055	92.9	618,310	397,073	221,237	55.7
2007	615,934	571,357	92.8	625,690	412,512	213,178	51.7

표 5. 연도별 대입지원자 추계표

연도	18세 인구 (추계)	18세 인구 지원자		18세 이외 인구지원자		합계 (추계지원자)
		지원율	지원자 수	비율	지원자 수	
2005	624,000	87.7	546,994	50.3	275,138	822,132
2010	679,000	95.9	651,036	44.6	290,362	941,398
2015	644,000	99.0	637,560	29.1	185,530	823,090
2020	508,000	99.0	502,920	13.6	68,397	571,317
2025	426,000	99.0	421,740	10.0	42,174	463,914
2030	404,000	99.2	400,950	10.0	40,095	441,045
2035	371,000	98.5	365,310	10.0	36,531	401,841
2040	354,000	99.0	350,460	10.0	35,046	385,506
2045	353,000	99.0	349,470	10.0	34,947	384,417
2050	321,000	99.0	317,790	10.0	31,779	349,569

표 6. 2007년도 학생모집 및 등록현황

구 분		모집인원	등록인원	등록(총원)율	비 고	
일반대학	정원 내	346,470	342,280	98.8	시·도별 총원율 차이	
	교육대학	정원 외	35,785	28,015	78.3	81%~99%
	산업대학	계	382,255	370,295	96.9	
전문대학	정원 내	238,035	219,528	92.2	시·도별 총원율 차이	
	정원 외	61,658	13,926	22.6	74%~100%	
	계	299,693	233,454	77.9		
합 계	정원 내	584,505	561,808	96.1		
	정원 외	97,443	41,941	43.0		
	계	681,948	603,749	88.5		

* 일반대학의 정원 외 모집인원에는 전년도 미충원 이월인원 6,323명이 포함된 수임

격하지 못한 학생은 다른 대학에 지원하거나 재수 또는 대학입학을 포기하게 되었다. 그러나 출산율의 급격한 저하로 인하여 원천적인 수요(입학지원자)가 부족하게 될 경우 대학(특히 대학운영비의 대부분을 학생등록금에 의존하는 대학)은 교육단위별 또는 전체적인 학생모집 정원 증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대비하여야 한다. 그러나 지역별 대학별 또는 전공별로 어떻게 학생들이 지원하게 될 것인가? 자신이 선호하는 대학 또는 전공 분야에 입학하지 못한 경우 대신 다른 대학이나 타 전공분야에 지원하는 인원이 어느 정도 될 것인가를 예측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또한 학생수요가 부족한 시대에는 정원 외 입학자를 고려해야 한다.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8조에 규정된 정원의 모집가능 규모가 정원의 20%(농어촌학생 등 기회균등 대상자 9%)수준을 넘고 있으므로 사실상 우리나라는 학생정원의 120% 이상의 수용이 허용되는 것으로 정원개념을 이해하여야 한다.

우선 2007년도의 경우 대학생정원과 학생모집 및 등록 현황 등을 살펴보기로 한다.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7년도 대학의 모집인원은 681,948명이나 등록인원은 603,749명으로 88.5%만 충원되었다. 당해 연도 18세 인구는 615,934명이므로 적령 인구 기준 98.0%가 대학에 입학한 것이며 모집인원은 적령 인구의 110.2%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실제 대학에 입학한 자 중 18세 이외의 자는 213,178명이므로 입학자

중 33.6%는 재수생 기타의 학생이라 할 수 있다. 18세 이외의 대학입학자는 1995년 48.8%로 거의 절반에 해당하였으나 2007년에는 3분의 1 수준으로 매년 감소추세에 있으며, 이는 당해 연도 고졸자중 18세인자의 비율이 1995년 71.2%에서 2007년 92.3%로 최근에는 초등학교부터 취학적령기에 입학하기 때문이다.

2. 미래의 적정 대입정원 추계 준거

적정 대입정원을 추계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사항은 추계의 정원 산출 단위를 전국규모로 할 것인지, 시·도별 규모로 할 것인지 또는 개별대학 단위로 볼 것인지가 문제가 된다. 왜냐하면 지역적 환경이나 대학의 사회적 평판에 따라 학생들의 입학지원 경향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학생모집 정원규모를 입학적령인구의 교육정책과 관련하여 정부가 어떠한 입장을 취할 것인가가 문제가 된다.

여기에서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역 간 균형발전과 특정 직업 관련 학문분야에 대한 정부의 정책을 유지하면서 대학 간 자유로운 경쟁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정원정책을 전제 조건으로 한다. 따라서 2050년까지의 대입정원 추계는 다음과 같은 세부 준거에 의거 산출하기로 한다.

- 1) 연도별 대학입학정원은 2005년부터 2007까지 최근 3년간의 18세 인구 대비 입학정원의 평균 수용률인

97%를 해당 연도의 18세 인구에 적용하여 산정한다.

- 2) 대학의 유형별(일반대학, 전문대학 등), 지역별 입학 정원은 2007학년도 정원 책정 비율과 18세 인구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 3) 연도별 학생모집 정원의 적정규모는 18세 적령인구를 모두 수용하는 것으로 한다. 재수생 등으로 인하여 매년 지원자가 실제 18세 인구 보다 많을 수 있으나 지원하는 대학에 합격하지 못하여 입학할 포기하여 이월될 수로 본다.
- 4) 연도별 18세 인구는 통계청이 추계한 수치로 한다. 다만, 2030 이후의 지역별 18세 인구는 전국단위 추계 총수를 2030년 지역별 구성 비율을 대입하여 산출한 수로 사용한다.
- 5) 2007년 현재 지역별 편차가 심한 미충원 인원 비율 문제는 지역 간 이동성을 추정할 수 없기 때문에 미래의 지역별 정원 추계 산출에 반영하지 아니한다.

3. 연도별 전국단위 적정 대입정원 추계

대입적령인구의 변화를 반영하여 연도별 전국규모의 적정 대입정원을 추계하면 다음 <표 7>과 같다.

V. 지역단위 미래 적정 대입정원 추계·분석

1. 지역별 연도별 18세 인구 추계

2050년까지의 전국 시·도별 18세 인구를 통계청 추계를 기초로 하여 산출하면 다음 <표 8>과 같다.

2. 지역별 연도별 적정 대입정원 추계

전국 16개 시·도를 고등교육의 지역 간 연관성과 통합성 정도에 따라 수도권, 부산·경남권, 대구·울산·경북권, 광주·전남권, 대전·충남권, 강원권, 충북권, 제주권 등 9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2050년까지의 적정 대입정원을 다음과 같이 두 가지 방법으로 나누어 추계한다.

- 기준 정원 : 해당 지역별 18세인구의 97%를 당해지역 소재 대학들이 수용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는 정원.
- 조정 정원 : 해당 지역별 2007년 현재 책정(해당지역 대학정원 합계)되어 있는 정원비율(당해지역 18세인구 비율구조)을 기준하여 이 비율을 해당 연도 기준

표 7. 연도별 적정 대입정원 추계표

연 도	18세 인구	대입지원자 수	적정 대입정원				
			대 학	교육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합계
2005	623,885	822,132	323,537	6,015	29,899	266,090	625,541
2006	611,406	790,831	321,107	6,015	21,587	247,604	596,313
2007	615,937	787,270	319,882	5,529	21,309	238,069	584,789
2010	679,000	941,498	360,271	6,586	23,710	268,063	658,630
2015	645,000	823,090	342,231	6,256	22,523	254,640	625,650
2020	508,000	571,317	269,540	4,927	17,739	200,554	492,760
2025	426,000	463,914	226,031	4,132	14,876	168,181	413,220
2030	404,000	441,045	214,358	3,919	14,108	159,495	391,880
2035	371,000	401,841	196,849	3,599	12,955	146,467	359,870
2040	354,000	385,506	187,828	3,434	12,362	139,756	343,380
2045	353,000	384,417	187,298	3,424	12,327	139,361	342,410
2050	321,000	349,569	170,319	3,114	11,209	126,728	311,370

* 2010년 이후 적정 대입정원은 2005년~2007년 18세 인구 평균수용 정원을 97%를 해당 연도 18세인구에 적용하고, 대학유형별 정원은 2007년도 정원구성비율 대학(54.7%), 교육대학(1.0%), 산업대학(3.6%), 전문대학(40.7%)을 기준하여 산출함.

표 8. 지역별·연도별 18세 인구 추계표

(단위 : 1,000명)

구분	2005	2010	2015	2020	2025	2030	2035	2040	2045	2050
서울	125	128	116	91	82	85	78	74	74	67
인천	34	41	36	28	24	23	21	20	20	18
경기	132	163	164	139	122	122	112	107	107	97
소계	291	332	316	258	228	230	211	201	201	182
부산	49	48	41	29	23	22	20	19	19	17
경남	38	45	44	34	27	23	21	20	20	18
소계	87	93	85	63	50	45	41	39	39	35
대구	35	37	34	24	19	17	16	15	15	14
울산	14	18	17	12	10	8	7	7	7	6
경북	36	34	31	23	18	16	14	14	14	13
소계	85	89	82	59	47	41	37	36	36	33
광주	21	23	23	18	15	14	13	12	12	11
전남	20	25	23	17	12	9	8	8	8	7
소계	41	48	46	35	27	23	21	20	20	18
대전	22	22	22	18	15	15	14	13	13	12
충남	27	25	25	21	18	16	14	14	14	13
소계	49	47	47	39	33	31	28	27	27	25
강원	19	19	18	15	11	9	8	8	8	7
충북	20	21	20	16	13	11	10	10	9	9
전북	24	24	22	17	12	10	9	9	9	8
제주	7	8	8	6	5	5	4	4	4	4
합계	624	679	645	508	426	404	371	354	353	321

* 자료 : 통계청, 2035~2050년의 시도별 추계수치는 2030년 분포비율에 따라 산출 하였음.

정원에 대입하는 정원으로 지역별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음.

서울 : 74% / 인천 : 44% / 경기 : 77% / 부산 : 110%	광주 : 129% / 전남 : 104% / 대전 : 150% / 충남 : 191%
경남 : 71% / 대구 : 77% / 울산 : 39% / 경북 : 162%	강원 : 151% / 충북 : 141% / 전북 : 130% / 제주 : 113%

1) 수도권

표 9. 수도권의 연도별 적정 대입정원 추계표

구분	서울		인천		경기		합계	
	기준	조정	기준	조정	기준	조정	기준	조정
2007	120,330	89,040	35,770	15,740	135,240	104,140	291,340	208,920
2010	124,160	91,880	39,770	17,500	158,110	121,750	322,040	231,130
2015	112,520	83,260	34,920	15,360	159,080	122,490	306,520	221,110
2020	88,270	65,320	27,160	11,950	134,830	103,820	250,260	181,090
2025	79,540	58,860	23,280	10,240	118,340	91,120	221,160	160,220
2030	82,450	61,010	22,310	9,820	118,340	91,120	223,100	161,950
2035	75,660	55,980	20,370	8,960	108,640	83,650	204,670	148,590
2040	71,780	53,120	19,400	8,540	103,790	79,920	194,970	141,580
2045	71,780	53,120	19,400	8,540	103,790	79,920	194,970	141,580
2050	64,990	48,090	17,460	7,680	94,090	72,450	176,540	128,220

2) 부산·경남권

표 10. 부산, 경남권의 연도별 적정 대입정원 추계표

구분	부 산		경 남		합 계	
	기 준	조 정	기 준	조 정	기 준	조 정
2007	46,060	50,670	39,810	28,270	85,870	78,940
2010	46,560	51,220	43,650	30,990	90,210	82,210
2015	39,770	43,740	42,680	30,300	82,450	74,040
2020	28,130	30,940	32,980	23,420	61,110	54,360
2025	22,310	24,540	26,190	18,590	48,500	43,130
2030	21,340	23,470	22,310	15,840	43,650	39,310
2035	19,450	21,340	20,370	14,460	39,820	35,800
2040	18,430	20,270	19,400	13,770	37,830	34,040
2045	18,430	20,270	19,400	13,770	37,830	34,040
2050	16,490	18,140	17,460	12,400	33,950	30,540

3) 대구·울산·경북권

표 11. 대구, 울산, 경북권의 연도별 적정 대입정원 추계표

구분	대 구		울 산		경 북		합 계	
	기 준	조 정	기 준	조 정	기 준	조 정	기 준	조 정
2007	34,320	26,430	15,750	6,140	32,110	52,020	82,180	84,590
2010	35,890	27,640	17,460	6,810	32,980	53,430	86,330	87,880
2015	32,980	25,930	16,460	6,430	32,110	52,020	81,550	84,380
2020	23,280	17,830	11,640	4,540	22,330	36,140	57,250	58,510
2025	18,430	14,190	9,700	3,780	17,460	28,290	45,590	46,260
2030	16,490	12,700	7,760	3,030	15,520	25,140	39,770	40,870
2035	15,520	11,920	6,790	2,648	13,580	22,000	35,890	36,568
2040	14,550	11,200	6,790	2,650	13,580	22,000	34,920	35,850
2045	14,550	11,200	6,790	2,650	13,580	22,000	34,920	35,850
2050	13,580	10,460	5,280	2,270	12,610	20,430	31,470	33,160

4) 광주·전남권

표 12. 광주, 전남권의 연도별 적정 대입정원 추계표

구분	광 주		전 남		합 계	
	기 준	조 정	기 준	조 정	기 준	조 정
2007	19,180	24,740	22,510	23,410	41,690	48,150
2010	22,310	28,780	24,250	25,220	46,560	54,000
2015	22,310	28,780	22,310	23,200	44,620	51,980
2020	17,460	22,520	16,490	17,150	33,950	39,670
2025	14,550	18,770	11,640	12,110	26,190	30,880
2030	13,580	17,520	8,730	9,080	22,310	26,600
2035	12,610	16,270	7,760	8,070	20,370	24,340
2040	11,640	15,020	7,760	8,070	19,400	23,090
2045	11,640	15,020	7,760	8,070	19,400	23,090
2050	10,670	13,760	6,790	7,060	17,460	20,820

5) 대전·충남권

표 13. 대전, 충남권의 연도별 적정 대입정원 추계표

구분	대 전		충 남		합 계	
	기 준	조 정	기 준	조 정	기 준	조 정
2007	19,750	29,630	22,980	43,890	42,730	73,520
2010	21,340	32,010	24,250	46,320	45,590	78,330
2015	21,340	32,010	24,250	46,320	45,590	78,330
2020	17,460	26,190	20,370	38,910	37,830	65,100
2025	14,550	21,830	17,460	33,350	32,010	55,180
2030	14,550	21,830	15,520	29,640	30,070	51,470
2035	13,580	20,370	13,580	25,940	27,160	46,310
2040	12,610	18,920	13,580	25,940	26,190	44,860
2045	12,610	18,920	13,580	25,940	26,190	44,860
2050	11,640	17,460	12,610	24,090	24,250	41,550

6) 강원권

표 14. 강원권의 연도별 적정 대입정원 추계표

구분	2007	2010	2015	2020	2025	2030	2035	2040	2045	2050
기 준	17,880	18,430	17,460	14,550	10,670	8,730	7,760	7,760	7,760	6,790
조 정	27,000	27,830	26,360	21,970	16,110	13,180	11,720	11,720	11,720	10,250

7) 충북권

표 15. 충북권의 연도별 적정 대입정원 추계표

구분	2007	2010	2015	2020	2025	2030	2035	2040	2045	2050
기 준	18,290	20,370	19,400	15,520	12,610	10,670	9,700	9,700	8,730	8,730
조 정	25,790	28,720	27,350	21,880	17,780	15,040	13,670	13,670	12,310	12,310

8) 전북권

표 16. 전북권의 연도별 적정 대입정원 추계표

구분	2007	2010	2015	2020	2025	2030	2035	2040	2045	2050
기 준	23,210	23,280	21,340	16,490	11,640	9,700	8,730	8,730	8,730	7,760
조 정	30,170	30,260	27,740	21,440	15,130	12,610	11,350	11,350	11,350	10,090

9) 제주권

표 17. 제주권의 연도별 적정 대입정원 추계표

구분	2007	2010	2015	2020	2025	2030	2035	2040	2045	2050
기 준	6,530	7,760	7,760	5,860	4,850	4,850	3,880	3,880	3,880	3,880
조 정	7,380	8,770	8,770	6,580	5,480	5,480	4,380	4,380	4,380	4,380

10) 전국합계

표 18. 전국합계의 연도별 적정 대입정원 추계표

구분	2007	2010	2015	2020	2025	2030	2035	2040	2045	2050
기준	609,720	658,630	625,650	492,760	413,220	391,880	359,870	343,390	342,410	311,370
조정	584,460	629,130	596,210	470,700	390,170	366,510	332,758	320,550	319,180	291,320

Ⅵ. 맺는 말

인구감소로 인하여 2020년에는 신입생의 20%가 줄고, 2050년에는 50%가 감소하게 된다는 예측은 대학재정의 대부분을 학생등록금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 대학으로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더구나 이러한 학생 수 감소가 각 대학에 균등하게 일어나지 아니하고 여러 가지 환경이 불리한 대학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많은 대학들이 차례로 도산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정부와 대학은 다음과 같은 정원정책을 강구하여 대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첫째, 정부는 학생정원의 긴축과 감축을 기조로 한 대학 구조개혁정책을 더욱 강화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대학재정의 학생등록금 의존도를 낮출 수 있게 국고지원을 획기적으로 확충하고, 대학 간 인수·합병 등 구조조정이 더욱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강구한다.

둘째, 대학신설과 수도권대학 정원의 억제정책을 계속 유지함으로써 지방이나 지명도가 낮은 대학들이 귀책사유 없이 급격하게 도산하는 혼란을 최소화 한다.

셋째, 대학은 시대적 지역적 상황을 고려하여 학문분야와 교육프로그램을 특화하는 등 예상되는 입학지원자 부족에 대비한 장단기 자구책을 수립하여 대비한다.

넷째, 대학과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여 평생교육을 더욱 확충하고, 외국인 학생 유치 등 적령인구 중심 교육체제를 다원화, 복합화 한다.

참 · 고 · 문 · 헌

- 교육인적자원부, 대학학생정원 자율화 정책, 2005
- 교육인적자원부,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1970-2007
- 김종철 외, 한국고등교육의 역사적 변천에 관한 연구, 한국대학교육협의회, 1989
- 이광호, 한국의 교육수요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5
- 이수오 외, 고등교육기관 학생정원운영 모델 개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01
- 이현청, 김형근 외, 대학정원자율화에 따른 고등교육분야별 교육수급 추정, 한국대학교육협의회, 1995
- 日本 文部科学省, 教育指標の國際比較, 2007
- http://www.kosis.kr